

# 뺏 올리는 DGB금융 황병우號... 시중은행 전환 원년 이끈다

오늘 주총서 회장 선임안 논의  
취임 후에도 대구은행장 겸임

국내 최연소 금융지주사 회장  
금융권 세대교체 바람 관측도  
조직안정화·영업망 확보 과제



황병우 DGB금융 차기 회장 내정자(현 대구은행장). /DGB금융

DGB금융그룹이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한다. DGB금융을 6년간 이끈 김태오 회장이 28일 임기를 마치고, 회장 내정자인 황병우 대구은행장(57)이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DGB금융의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만큼, 최연소 금융지주회장 내정자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내정자인 황병우 현 대구은행장의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임기는 3년이다. DGB금융 규정이 대구은행장 임기를 최소 2년으로 정하는 만큼 황 내정자는 회장 취

임 이후에도 대구은행장을 겸임한다.

황 내정자의 금융지주 회장 취임은 DGB금융 내부에서 바라던 일이다.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견제하는 등 금융권 지배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황 내정자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해 금융지주사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8개 금융지주사는 지난 15일 금융당국에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제출했다. 일부 지주사의 로드맵에는 ▲상시 후보군 관리 ▲후보군에 대한 회추위 평가 도입 등 DGB금융의 경영 승계 절차와 유사한 개선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내정자의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DGB금융의 조속한 조직안정화 및 성공적인 전국 단위 영업망 확보가 꼽힌다.

국내 최초로 지방금융지주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만큼 지방 영업에 특화된 기존 조직을 전국 영업에 적합한

체질로 개선하는 과정과 더불어 기존 금융지주와의 체급 차를 극복하고 영업권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황 내정자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뉴 하이브리드뱅크' 전략을 제시했다. 개인 금융에서는 내·외부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기업 금융에서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화두로 떠오른 주주 권한 강화 및 배당 확대를 통한 기업 제고 및 지배구조의 개선도 황 내정자의 과제로 꼽힌다.

최근 금융권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사외이사 확충 등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BNK금융과 JB금융은 사외이사를

확충했고, KB금융과 하나금융,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및 배당을 확대했다. DGB금융은 아직 사외이사 확충이나 중간배당 등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황 내정자의 취임 이후 사외이사를 우선 확충한다.

DGB금융 관계자는 "DGB금융은 연내에 주총 안건으로 사외이사 증원을 다룰 계획이다"라며 "금감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여성 사외이사를 1인 이상 총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추진할 계획이다.

천병규 DGB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자사주 매입에 나설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시기와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며 "주주 입장을 고려해 매입 후 소각이나 교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문턱 낮춘 청년도약계좌... 군인도 가능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로 조정  
軍 장병·전역 청년들도 신청 대상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이 저조하자 금융당국이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도약계좌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한 조치로, 가입요건 완화가 분위기를 반전 시킬지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 수가 221만5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운영된 3월 계좌개설 기간에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6만8000명으로 누적 계좌 개설 수는 82만6000명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출시됐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06만명이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흥행 실패를 예상한 정부는 부라부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시키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또한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도 지난 25일부터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 역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저조한 실적을 만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지난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공감IBK'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과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IBK기업은행

## 김성태 기업은행장, 직원들과 소통행보

'토크콘서트, 공감IBK' 진행

IBK기업은행은 김성태 은행장이 지난 26일 기업은행 본점 IBK 열린도서실에서 직원 30여명과 '토크콘서트, 공감IBK'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평소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김행장이 제안해 시작된 토크콘서트는 편안한 공간에서 직원들과 자유로운 주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신

입부터 팀장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참석해 '리더와 팔로워, 함께 걷는 IBK'를 주제로 90분간 진행됐다.

김행장은 조직 내 리더와 팔로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 생각한다"며 "세대·직급간 가치관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軍 장병, 정책금융 모두 가입뎀 전역 후 3000만원 '목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3종 정책상품  
시중상품보다 금리 높고 세제혜택 ↑

정부와 금융당국이 청년대상 정책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군 장병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의 종류도 늘고 있다. 올해 입대한 장병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정책금융상품에 모두 가입한다면 전역 후 기대 자산은 약 3000만원(18개월 기준)에 달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근거에 군 장병 급여를 포함키로 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년도 소득 근거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 임금이 소득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군 장병 및 직전년도 전역자의 가입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재 군 장병이 가입 가능한 청년대상 정책금융상품은 장병내일

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 청약 등 세 개다. 정책금융상품은 통상 시중은행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정부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

18개월을 복무하는 군 장병이 납입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최대 월 40만원), 청년도약계좌(최대 월 70만원)에 가입하고 최대로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전역 후 기대 가능 자산은 약 2834만원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도 공공분양 청약의 월 납입 인정액인 월 10만원을 매달 납입한다면 총 기대 가능 자산은 약 3000만원에 달한다. 상품별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이 1474만원, 청년도약계좌 납입액 및 기대 이자가 1360만원(군 장병 소득 구간 적용,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 청년주택

드림청약 납입액 및 기대 이자가 186만원(2년 이상 유지 금리 기준, 무주택 가구 비과세 미적용 기준)이다.

다만 최대 납입액이 복무 기간 내 평균 급여(18개월 기준)인 92만원을 상회하는 만큼 여유 자금이 없어 납입이 어렵다면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좋다.

최고 금리 적용 기준에 맞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40만원, 청년도약계좌에 월 40만원을 납입할 시 총 기대 자산은 2270만원 수준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 청약은 비과세 혜택 및 지원금을 적용받기 위해 각각 5년과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하거나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해야 하는 만큼 해당 상품 가입 시에는 전역 후 기대 소득도 고려해야 한다. /안승진 기자

##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추진

세종시-LH 기업 컨소시엄 구성  
21종 스마트 서비스 설계 등 이행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행복도시 생활권을 조성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는 모빌리티·헬스케어·데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다.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

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한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도주주택공사(LH), 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 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